

[Culture Note] 국제 갤러리 <과정이 형태가 될 때: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>

April, 2016

국제 갤러리 <과정이 형태가 될 때: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>

2.20.~4.24.

국제갤러리는 <과정이 형태가 될 때: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>展을 보고시안 재단과 협력으로 4월 24일까지 개최한다. 대표적인 단색화 작가 권영우, 김환기, 박서보, 이우환, 정상화, 정창섭, 하중현의 1970년대 및 80년대 주요작품 50여 점이 소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, 각 작가들이 지니는 작품방식의 고유한 행위성을 기반으로 구현한 정신적인 추상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. 또한 당시 역사적인 측면과 더불어 전통적인 회화의 재료 및 방식이 실험적으로 도전했던 궤적을 발견할 수 있다.

국제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의 자주적인 미학운동으로 자리잡은 단색화의 전개 과정과 그것이 동시대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가치를 심도 있게 풀어내고자 한다.

문의 02-3210-9885 장소 국제갤러리

